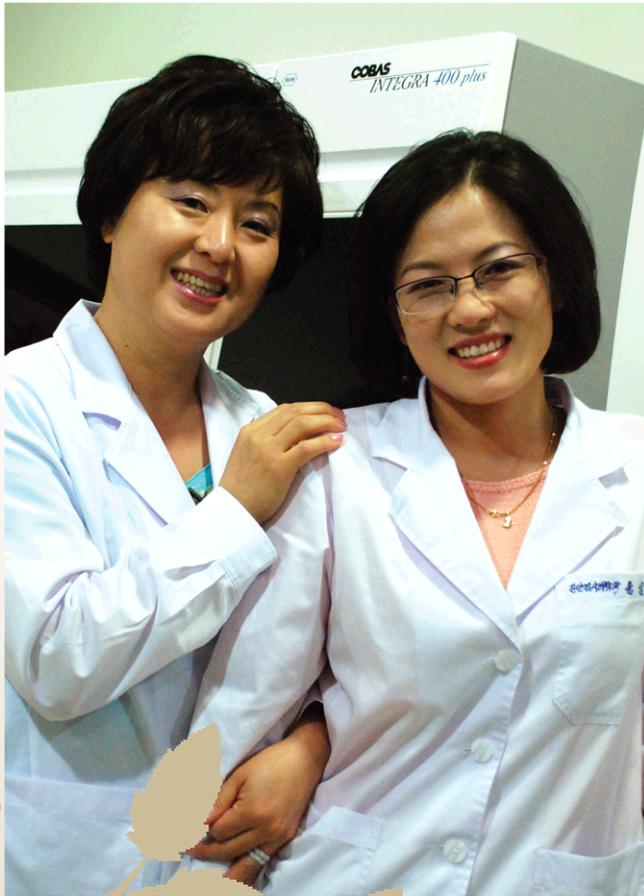




커피 향 가득한 따스함이 묻어나는

시지노인병원 진단검사의학실



시지노인병원의 진단검사의학실로 들어서면 은은하게 퍼지는 감미로운 원두커피 향이 가장 먼저 코끝으로 전해진다.

진단검사의학실에 웬 커피향이 나는 걸까 다소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, 이러한 커피 향은 혈액과 소변 검사 등 각종 검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검사실 특유의 악취를 조금이나마 제거해줄 뿐만 아니라 진단검사의학실이 보다 향기롭고 편안한 공간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또 다른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.





내 부모님을 모시는 정성으로

시지노인병원의 진단검사의학실은 향기로운 커피 향만큼이나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손경희 실장과 윤임연, 이렇게 두 명의 임상병리사가 늘 같은 자리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다.

이곳에서는 혈액학, 생화학 검사를 비롯하여 혈청학, 전해질, 소변 검사, 혈액은행 등 다양한 검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간과 신장 기능은 물론 콜레스테롤, B형 간염, 매독, 빈혈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특히 진단검사의학실의 다양한 장비들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각종 문제를 일으키기가 쉬운데, 이곳에서는 두 임상병리사의 철저한 관리와 노하우 아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병원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고 있다.

“아픈 몸을 이끌고 오신 분들이 많은 만큼 더 고통 받으시지 않도록 가능한 한 번의 검사로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체혈을 했을 때 용혈이 되어 검사에 자칫 에러가 발생할 경우 어르신들의 피를 다시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서 검사를 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.”

진단검사의학실의 손경희 실장은 이곳을 찾는 모든 환자들이 자신의 부모이자 가족과도 같기에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고 한다. 지금껏 그들과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으며 수많은 추억들과 사랑을 간직할 수 있게 해준 그들에게 오히려 감사하다는 그녀다.

그녀들의 사랑이 누구보다 더욱 친절하고 가슴 따뜻하게 전해지는 것은 단지 직업으로 써가 아니라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정(情)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려 노력했던 그녀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고스란히 깃들어있기 때문이 아닐까.

은은한 커피 향을 닮은 손경희, 윤임연 임상병리사의 진심어린 마음이 이곳 시지노인병원 식구들 모두의 가슴 속 깊이 전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.

